

제 13 권 자기 점검

1. 자기 점검

출처: *The Christian Soldier, or Heaven Taken by Storm*, ed. Armstrong, Second American Edition (New York: Robert Moore, 1816), 55-56.

저자: 토마스 왓슨(1620-1686): 영국 비국교도 청교도 설교자, 작가이다. 영국 잉글랜드 요크셔 출생.

역자: 정영진

자기점검은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것이다: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 (시편77:6). 다윗은 자신을 심문했다. 자기점검은 당신의 양심을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엄격히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점검은 영적 탐구이며,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심판 날을 시작한다.

자기 검사는 마음을 분석하는 것이다. 외과 의사가 해부할 때, 내장(내부, 심장, 간, 동맥 등)을 발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해부한다. 그는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찾는다. “나의 영은 부지런히 찾았도다” (참조, 시 77:6). 누가복음의 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눅15:8). 마찬가지로 양심은 “여호와와 등불” (잠 20:27)이다. 이 등불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찾기 위해 영혼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시험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상상과 의견은 잘못된 기준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 이라고 부른다(시119:105).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말씀이 심판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태양으로 색을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의 빛으로 영혼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자기점검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무이다. 스스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자기점검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그것은 자기반성의 일이다: 그것은 주로 마음의 일이다.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외적 종교행위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문을 읽는 것은 가톨릭 신자가 목주를 세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시험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펴 무슨 결함이 있는지 모든 부분을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반성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보는 그 눈 자체는 못 본다. 다른 이들의 결점을 보는 것은 쉽지만 자신을 살피는 일은 어렵다.

2) 자기사랑 때문에 어렵다. 어리석음은 눈을 가리고, 자기사랑은 착각하게 한다. 모든 사

람은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웃사랑에 대한 솔로몬의 말은 자기사랑에 대해서도 진실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10:12). 자기사랑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덕은 더 커 보이고 자신의 죄는 더 작아 보인다. 자기사랑은 허물을 점검하기보다 변명하게 만든다(출 4:3).

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자기점검을 피하게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은 죄책감을 의식한다. 죄는 내면에서 외친다.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찾지 않기 위해 내면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양심의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을 읽는 것은 즐겁지 않다(참조, 단5:24). 재산이 줄어드는 상인들은 재산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지 않기 위해 회계장부를 검토하거나, 계산서를 확인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한다.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처럼 말이다(출4:3).

2) 그들은 어리석고,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좋게 생각한다. 그들은 추정이라는 저울로 그들 자신을 평가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도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마 25장).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안전할 수 있다. 만약 땅을 산다면, 신뢰로 땅을 취하지 않고 권리증서를 확인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만 천국의 권리 증서를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

3)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견에 안심한다. 얼마나 헛된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금이나 진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진 은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블랙리스트(black-book)에 적으실 수 있다. 다른 사도들은 유다를 참된 신자로 여겼다. 그들은 증명서도 써줄 수 있었지만, 유다는 배신자였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외적 행동만 볼 수 있고, 마음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강의 표면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지만, 바닥에는 해충이 있다.

4)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17:9). 솔로몬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다(잠 30:19). 그는 다섯 번째를 추가했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은 가장 큰 사기꾼이다. 구원하는 은혜를 간직하는 대신에 겉으로만 은혜를 받은 체 할 수 있다. 마음은 약간의 눈물이 회개이고, 게으른 열정이 믿음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같이 부패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시험하는데 게으르다. 이러한 자기반성에 대한 자연적 회피는 마음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조사를 더욱 방해한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자기 시험의 고통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의 구원은

그것에 달려있다. 여인이 집에 거의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이 음녀라는 표시이다.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잠7:11-12). 다른 사람의 결정만 보고, 자신의 마음의 집은 절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은 매춘부와 같은 가짜 신자의 표시이다. 시금석으로 금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자.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누룩을 찾아내어 불태워 버리자. 우리의 은혜를 살펴보고 그것이 바른 은혜인지 확인하자. 한 사람이 들에 채소를 캐러 갔지만, 그는 들호박을 가져왔고, 술에는 죽음의 독이 퍼졌다(왕하 4:40).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은혜는 들호박이고,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준다.

이 위대한 점검의 일을 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

1) 자기점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절대로 알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신들은 내가 행복할지 비참할지를 안다.” 가인이 땅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마음을 진지하게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왕에게 속했는지 알아야 한다. - 평화의 왕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2) 우리가 자신을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천부장이 채찍으로 바울을 심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행 22:24).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물으신 그 질문을 하실 것이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만일 우리가 주께 그분의 형상을 보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실 것이다.

3) 내면의 은밀한 부패는 점검 외에는 절대 찾을 수 없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는 숨겨진 부패가 있다. 바로의 종들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잔을 가져간 것에 대해 고발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자루에 은잔이 없다고 맹세했다. 자신을 점검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 안에 무신론, 교만,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4) 큰 유익이 쌓일 것이다. 점검 결과가 어떠하든 큰 유익이 있다. 만약 점검을 하여 우리가 진리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실수는 발견되고, 위험은 예방된다. 만약 우리가 은혜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자신을 점검하여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발견한다면 이는 증거 상자를 찾은 것과 같다. 그는 모든 약속된 것을 받게 될 상속자이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기점검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을 도와주시길 간구하도록 하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욥34:32). 주여, 베일을 벗기소서. 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실수로 멸망하거나 천국의 희망만 가진 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소서.

~~~~~

자기점검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무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스테판 차녹

## 2.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출처: 1858년 10월 10일 주일 아침, 로열 서리 가든 뮤직 홀에서 전해진 설교.

저자: 찰스 스펔전(1834-1892): 영향력 있는 영국 침례교 설교자; 영국 에섹스의 켈베돈에서 태어났다.

역자: 김선형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전 13:5).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시대의 비평가들이었다. 그들은 학습과 언변을 자신의 명예로 삼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중받길 원하듯 그들도 지혜와 학문을 잘못 사용하였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울의 스타일을 비판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고후 10:10). 아니,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한번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 하니라"(고후 12:11).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두 차례 서신을 보냈다. 두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울은 그의 대적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그들의 비난의 칼을 빼앗아버리고는 그것으로 그들의 가슴을 겨냥하며 말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는 나의 교훈을 논박했으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나의 사도권을 입증하게 했으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 잠시 나를 향해 잘못 행사했던 그 힘을 너희 자신의 인격에 쏟아라!"

자,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배당을 나오면서 자기 이웃에게 "오늘 설교는 어땠습니까? 아침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말하지 않게 하라. 이런 질문이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집을 나오면서 해야 할 질문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려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사람의 평가로 판단 받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은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든 넘어지든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유익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말씀이 나를 때리지 않았는가? 그것이 정확히 내 상황에 맞지 않았는가? 그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들여야 할 책망이고, 나를 향한 질책과 권고의 말

씀이 아니었던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자.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인 설교자를 평가하지 말자.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받으러 나온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기 점검에 대한 거대한 퇴보가 있기에 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볼 것을 간곡히 권하며 이 시간 몇 분을 할애하고자 한다.

**먼저,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지만 나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본문은 아주 단순하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본문의 감동적인 호소에 더 깊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누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으로 당신은 그 의미를 보다 더 완벽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시험하라"는 것은 학문적인 개념이다.** 한 소년이 어느 기간 교육을 받고 스승은 그의 역량을 시험한다. 그에게 어떤 발전이 있는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물어보라! 은혜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위해 질문하라. 살아있는 경건함 가운데 있는지 마음을 점검하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엄밀한 검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그것은 또한 군사적인 개념이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또는 자신을 새롭게 하라. 당신의 행동의 우선순위와 그 기록을 살펴보고 당신의 모든 동기들을 점검하라. 마치 군대의 대장이 그의 부하를 멀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장비들을 살펴듯이 당신은 자신을 잘 살펴보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를 시험하라.

**그것은 또한 법적인 개념이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당신은 변호사가 증인석에 있는 증인을 조사하거나 반대신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 명심하라. 결코 당신의 마음보다 덜 신뢰할 만하고, 더 속이는 범죄자는 없다.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심문할 때 당신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거짓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앞으로 뒤로 질문하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라. 만일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자기기만으로 위장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의 부패한 마음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여행자의 개념이다.** 원문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행가로서 만일 그가 어떤 나라에 관한 책을 써야 한다면, 경계만 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하자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나라를 관통할 것이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 햇빛 속에서 그의 이마를 닦는다. 그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 우뚝 솟은 정상 사이로 가느다란 조각 같은 파란 하늘을 본다. 만약에 그가 샘의 발원지까지 찾지 못한다면 넓은 강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표면에 있는 생산물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땅 밑에 깔려 있는 광물들을 찾아야 한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살펴보라. 당신의 공개적인 인격의 산 위에 올라설 뿐 아니라 당신 개인의 삶의 깊은 계곡까지 내려가라. 당신의 외적인 행동의 넓은 강 위를 항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숨겨진 동기를 발견하

기까지 좁은 실개천을 따라 올라가라. 토양의 산물인, 당신의 행위만 보지 말고 마음속을 파고들어 그 근본 원리를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것은 아주 거창한 말이라 계속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엄중한 권고에 전적으로 따르는 이들이 매우 적을까 두렵다.

만일 본문을 자세히 조금 더 보면 또 다른 단어를 만나게 된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것은 자기 시험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 둘의 차이를 설명하겠다. 한 사람이 말 한 마리를 사려고 한다. 그 사람은 말을 면밀히 조사한다. 그는 말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는 혹시 어떤 결점을 찾을 수도 있기에 유심히 말을 검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가 말을 살펴본 후에 팔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입증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말에 투자하기 전에 그 말을 입증해볼 수 있도록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처럼 확증은 시험보다 더 많은 증거를 내포한다. 그것은 더 깊은 단어이며 문제의 근원과 속성까지 들어간다. 나는 어제 이 예시를 보았다. 한 배가 출항을 앞두고 검사를 받았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다. 또 배가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그것을 시운전해 본다. 배가 확인되고 시험을 거친다. 그러고 나면 배가 좀 더 거칠게 다뤄지는데 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며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비로소 배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단지 옷장 속에 들어가 당신 자신만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바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당신 안에 어떠한 경외심이 있는지 살펴보라. 기억하라. 많은 사람의 신앙이 확증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 앉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래, 이것이 도움이 될 거야!"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잡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날염 무명과 같다. 그것들은 색상을 보증하고 눈으로 볼 때도 그래 보이지만, 집으로 가져왔을 때는 세탁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와 같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에 "품질보증" 표시가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색상이 어느새 변하기 시작하고, 그제야 그는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을 가져온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들이 다 같이 어리석긴 하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눅 14:19). 즉, 그에게는 최소한 자신의 소를 시험할만한 세속적인 지혜는 지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을 확증하라. 의무의 고랑에서 쟁기질을 해 보라. 당신이 과연 복음의 섬김의 굴레에 익숙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의 역량을 시험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버림받은 자로 입증되지 않도록, 일상의 용광로에서 자신을 시험하라. "당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빠뜨린 한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누군가 말할 것이다. "오, 당신이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거군요. 저는 전통적인 기독교인이고, 온전히 그 기준을 따르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시험 기준에 내가 합격하여 약간 넘어섰는지에 대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에게 작용하는 것을 느끼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원칙이 된다. 믿음이 그의 거주지이고 그곳에 그가 머물 수 있으며 믿음이 바로

그가 마시는 공기이고 그를 지탱하여주는 허리띠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정통 교리라도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원칙이 없다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연구를 게을리 한 것이다!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집 안에 가장 소중한 보화가 있는데 당신은 밖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 당신은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고 망치면서 아무 관련 없는 일들로 바쁘게 지내왔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있어야 하고, 그곳에 형성되어 살아있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즉,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 헛된 거짓말쟁이, 거짓 신자들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신앙은 단지 허영과 쇼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렘 6:30).

자, 무엇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할까? 로마 가톨릭 신자는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심장에 십자가를 품는다. 나의 친구여, 당신의 심장에 십자가를 품는 것이야말로 등에 메진 십자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치료책 중 하나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십자가, 곧 영광의 소망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세상 고통의 모든 십자가들은 당신에게는 충분히 가볍고, 견뎌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대화하고, 그를 일용할 양식처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행하시는 성전과 궁전처럼 된다는 뜻이다. 아, 이 구절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갈보리 산 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약간 알지만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자, 기억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심령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갈보리 위의 그리스도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기쁨이며, 능력, 그리고 위로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령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유에서 나신 마리아의 아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

만일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서 자신의 분깃과 거할 곳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은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 오락, 이익에 대해 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토마스 보스턴

3.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출처: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 2, Reformation Heritage Books, 307-310.

저자: 빌헬무스 아 브라켈(1635-1711):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네덜란드 제2종교개혁의 대

표적 인물; 네덜란드 레위바르덴에서 출생.

역자: 아브라함 장

믿음은 기독교의 생명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잘못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거짓 평화에 빠져 멸망으로 향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봐 두려워하며 슬픔 속에서 평생을 보낸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다. 따라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현세적인 믿음인지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여, 저의 믿음을 옳게 점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믿음과 현세적인 믿음이 서로 아주 흡사하여, 단지 그 정도와 기간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양자를 분별하는 일이 좀처럼 불가능하리라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양자는 각자의 본질적 속성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이 둘 간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 어둠과 빛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어려운데 특히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려 할 때 그러하다. 참된 신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받았으므로 현세적인 믿음의 소유자와 달리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좀 더 쉽게 확신할 수 있다. 현세적인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한 것을 듣거나 그들이 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단으로 삼아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그 믿음의 참된 본질과 고유한 특성에 관하여는 실로 무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이 글을 읽고 있거나 혹은 이 글을 듣게 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질문에 응답해 보라. 당신은 과연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랴 말하겠는가? 당신은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자, 이제부터 당신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점검해 보라.

첫째,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자식이다. 당신은 동시에 둘 다 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제3의 선택이 없으니 중립도 불가능하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혹은 괄시를 받고 있든, 당신이 얼마나 유복한 사람이든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라. 당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놓고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노력은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조금이라도 부주의해서야 되겠는가?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의 결말이 과연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참된 신자는 아니다. 그렇다. 그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 극히 소수만이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참된 신자들이다. 마치 개미떼처럼 바글바글 붐비는 혼잡한 시장 속 인파를, 혹은 교회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무리를 떠올려 보라. 그러면서 다음 사실들을 상기해 보라. 주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행 8:13).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도 잔칫상에 앉아있었다(마 22:11). 처녀들의 절반은 미련한 자들이었다(마 25:2).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마 22:14).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반하여 큰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걸어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의 수는 많다(마 7:13-14). 그러므로 이제 초점을 당신 자신에게 맞추어 당신은 과연 스스로에 대하여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 26:22).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 26:25).

셋째, 자기 점검을 소홀히 하고 스스로의 마음 살피기를 등한시하는 것은 가장 해로운 것이다. 이러한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주의의 잠에 빠져들게 된다.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은혜의 수단을 무용하고 무력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위험 앞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세상과 죄의 포로로 전락한다. 그렇다. 결국 자기 점검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열쇠로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넷째, 자기 점검은 대단히 유익하다. 사람은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당황스러워하게 된다. 그 결과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진실하고 진지하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빛과 생명,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솟아오르는 기쁨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큰 능력을 덧입게 되는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자유를 맛보게 되며, 영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다섯째, 게으름과 절망감, 자포자기 등의 이유로 자기 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위로와 기쁨을 상실하게 되며, 성장이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수시로 당신 자신을 점검하고, 그때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7)하시는 주의 물음에 대답하도록 하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다. 그런 사람이 어찌 번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애 3:40).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습 2:1). “사람이 자기를 살피게 하라” (고전 11:28).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후 13:5).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복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 즉 자신이 하나님과의 은혜언약 안에 있는지, 또 자신이 믿는 신자인지에 대하여 능히 알 수 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가진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가 진단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예수님이 그

에게 속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 2:16).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 (욥 19:25). “네가 ...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사 60:16). “내가 확신하노니 ...” (롬 8:38).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12).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라.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역시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곱째, 비록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러한 상태를 깨닫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상상 속에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반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던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한동안 굳건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들조차도 그 마음이 쉽게 악화되고 어두움에 빠질 수 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 30:6-7).

참으로 은혜언약에 들어간 참여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여전히 어둠 속에 휩싸여서 충분한 빛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는 별개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해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 안에 있는 은혜를 준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빛은 그들에게는 없다. 더욱이 어둠과 은혜가 공존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옛사람의 너무 많은 부분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소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들은 비참할 만큼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 30:12).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심사숙고하여 보라.

~~~

스스로를 시험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그저 “오, 나는 아무 문제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하지만 그러한 사이에 당신은 마지막 파멸로 마치게 될 거짓 평화를 당신 영혼 안에 키우고 있는 것이며 지옥에서 눈을 뜰 때까지는 결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다. - 찰스 스펔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유익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으며, 속량이 치러졌고, 이에 오직 믿음으

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옥을 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당하신 공로적 수난 속에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의 부활과 승천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간구하시는 중보 속에서 과연 무슨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영혼 속에 이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겠는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영혼을 보호하실 것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무지를 없애버릴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의 영혼을 기억하셨고, 하늘에 계신 그분은 가슴으로 나를 패념하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의 등기부에는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스테판 차록

#### 4.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

출처: *Practical Religion: Being Plain Papers on the Daily Duties, Experience, Dangers, and Privileges of Professing Christians* (London: Charles Murray, 1900), 3-9;  
저자: J. C. 라일 (1816-1900): 영국 교회 주교, 영국 체셔 카운티 매글즈필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우리는 특이한 영적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아마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표명하는 시대는 없을 것이다. 모든 회중 가운데 참마음의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참된 의미로 주의 만찬에만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 설교자들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특이한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구름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참되고 본질적인 기독교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일 뿐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끊임없이 가장 분명하고 뼈저린 예증을 보여준다. 길 가의 청중들,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청중들, 가시떨기 밭의 청중들은 사방으로 가득하다.

이 시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은, 두렵건대, 습관적으로 독한 술을 마시는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언제나 미친 듯이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흥분만 얻으면 될 뿐, 그것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아 보인다. 모든 설교가 그들에게는 다 비슷하다. 지혜롭게 들리고 그들의 귀가 시원하기만 하면 그들은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 채 군중들 사이에 앉는다. 가장 열악한 것은, 아직 젊고 미성숙한 수많은 신자들이 동일한 흥분에 감염되어 있어서 그 흥분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들은 ‘옛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일종의 병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기독교를 취하면서 마치 아덴 사람들처럼 언제나 가장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행 17:21). 거만하지 않고, 자기 확신 및 자기기만에 물들지 않은 차분한 마음을 가진 젊은 신자를 찾아보는 것은 참으로 드물다. 그들은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매일 꾸준히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노력하거나 조용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

며 집에서 삼가는 일이 거의 없다!

너무나 많은 젊은 신앙인들이 시끄럽고 고집불통이고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연로한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며 신앙의 뿌리와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빙성과 지혜를 믿으며 자만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동안 여러 교훈에 밀려 이리 저리 다니며 요동친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사소하고 좁은 생각에 빠져들거나, 판단에 늘 앞선 분파에 속하게 되거나, 무감각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붙들거나, 또는 어떤 한 가지에 치우쳐 집착하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점검이 대단히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내 영혼은 어떠한가?” 하고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 나는 자기 점검을 위한 점검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순서대로 확인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 글을 손에 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점검을 해 보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짧은 시간에 조용히 자기를 점검해 보기를 초청한다. 나는 당신을 원수가 아닌 친구로 다가가고 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롬 10:1). 처음 이 글을 읽을 때는 거칠고 엄격한 말을 하는 것 같더라도 참기 바란다. 나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 최고의 친구라고 믿으라.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당신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렵건대,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신앙의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들은 사업과 쾌락과 정치와 돈과 이것저것 방탕한 일에 빠져 산다. 조용히 죽음, 심판, 영원, 천국, 지옥, 내세를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영원한 선고를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기독교를 현실이 아닌 단순한 소셜처럼 여긴다. 그들은 로마교도도 아니고 소시니안들도 아니며, 이교도도 아니고 고 교회파, 저 교회파, 심지어 광(廣)교회파에 속하여 있지도 않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렵게 어떤 의견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무감각하고 비이성적인 삶의 방식은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 이유가 있는 척 행동한다. 그들은 질병이나 가족의 죽음, 또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얼마동안 겹을 먹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생각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멋지고 평정한 자세로 그들의 길을 고집하고 나아간다.

불멸의 피조물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사실 이러한 삶은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깎아내린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실제로 수많은 우리들의 삶이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는 그들과 같은 또 다른 우리들이 차지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 그림은 끔찍하고 괴롭고 혐오스럽지만, 불행하게도 참으로 그러하다. 모든 큰 마

을에서, 모든 시장에서, 모든 증권 거래소에서, 모든 클럽에서 당신은 해 아래 것만 생각하는 수많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필요한 단 한 가지만 빼고 생각한다. 바로 그들의 영혼 구원이다. 그들은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길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사 1:3; 학 1:7; 신 32:29; 전 5:1). 그들은 갈리오처럼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마음에 없다(행 18:17). 만일 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바라는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산다.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 더 신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후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다수일 때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속하여 있는지를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묻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구원의 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가끔 생각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충격을 주는 설교를 들은 후, 또는 장례를 치른 후, 병에 걸렸을 때,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간증을 담은 신앙서적이나 전도지를 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잠깐 신앙에 대해 생각하며 막연하게 신앙에 대한 대화도 나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본 것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듯 금방 멈춰버린다. 그들은 언제나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자신들도 잘 될 것을 소망한다. 가끔 결심도 하고 진지한 마음도 갖고 신앙을 가져보려고 결심도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세상과 죄를 끊지 않으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물론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위해 행하는 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맏아들처럼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는” (마 21:28-30) 자들이다. 그들은 에스겔이 묘사한,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결코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과 같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겔 33:31-32). 오늘날도 역시 듣고 생각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이 너무 흔하다. 그들은 내가 자기 점검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나는 나의 독자들에게 이 질문을 고민할 것을 부탁한다. “나는 내 영혼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셋째로, 내가 묻는 것은 우리는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로 우리의 양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파선하고 있다.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기독교의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외적인 것들에 많은 소란을 떠난다. 그들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신경을 쓰며 모든 형식과 조례를 규칙적으로 지킨다. 그들은 성만찬이 거행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툼 준비가 되어 있고, 오직 자기 교단, 자기 파, 자기 교회만을 지나치게 지지한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

들을 가깝게 아는 자들은 그들의 애착이 하늘의 것에 있지 않고 땅의 것에 있는 것을 눈 감고도 안다. 그들은 내면의 결핍을 외형의 과다한 형식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다. 외적인 것을 중시 여김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들은 내면의 기쁨과 평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변함없는 갈등 가운데 삶을 보내면서 마음 깊이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낀다.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자, 결국 그들은 형식적인 어떤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가지만 결국 절망 가운데 치명적으로 곤두박질하고 결국 교황 종교인 가톨릭에 빠진다!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자세한 자기 점검의 무한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도 그 필요를 고민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종교의 껍데기나 껍질, 그리고 형식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형식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 15:8-9).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고 주의 성만찬을 받는 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 은혜의 수단과 기독교의 형식은 나름대로 유용하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이는 그의 교회를 위해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항구에 달는 길을 보여주는 등대로 인해 파선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다시 한 번 묻는다. “나는 내 영혼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넷째로, 내가 묻는 것은,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게 매우 악한 적은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복하여 말하지만, 자신들은 항상 천사들처럼 살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쁜 것을 한 번도 행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 모두는 다소 ‘죄인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하고 거저주는 영원히 완성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광이다.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살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는 그의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지만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이 용서는 자동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 사함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죄 사함은 각 개인이 반드시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될 뿐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사람에게 이보다 더 간단하고 적당한 말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믿음은 겸손히 구원 받기를 바라는 진정한 신뢰이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고자 하신다. 하지만 사람은 예수께 나아와 믿어야 한다. 믿는 모든 자마다 당장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며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은 없다.

자, 이것이 핵심이다. 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까 두렵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고 말한다. 심지어 예수님 외에는 죄인을 위한 구주도, 대속자도, 중보자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지점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그 지점까지 결코 가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구주’는 아니고, 대속자라고 말하지만 ‘나의 대속자’는 아니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대제사장’은 아니고, 대언자라고 말하지만, ‘나의 대언자’는 아니다. 이에 그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죽는다! 마틴 루터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 것은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대다수이니 내가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 훌륭한 기독교 자매님이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 “내 영혼의 영생의 시작은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나의 아버지를 방문하러 왔던 늙은 신사와 가진 대화였어요. 그는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나의 착한 아이야. 내 삶은 거의 끝났단다. 너는 아마도 내가 떠난 후에 오랫동안 살겠지. 하지만 두 가지를 잊지 말거라. 하나는 우리가 사는 동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란다.’ 나는 그의 말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려요.” 나는 한 번 더 물겠다. 당신은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가?

**다섯째로, 내가 묻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로 회심한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 18:3; 요 3:3; 롬 8:9; 고후 5:17).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너무 악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변화가 없이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죽음 후에 주를 즐거워할 수 없다.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물로 가는 것처럼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한다. 그들은 배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높은 낮은, 부요하든 가난하든, 착하든 어리석든, 우리 모두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변화이다.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던 (새출생, 중생, 갱신, 새피조물, 소생, 회개)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것을 받으면 반드시 알 수 있다.

회심과 반드시 동반되는 표와 증거들은, 죄에 대해 느끼고 그것을 깊게 미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며, 거룩함을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렵건대 회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은 죽었으며, 잠들었으며 맹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들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사도신경을 반복하겠지만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대

해서 전혀 무지하다. 때로는 그들은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묘사한 새 생명의 표시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기들은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맞을 거라고 스스로 안위한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 회심을 강조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종교적인 흥분을 회심으로 아는 이런 시대에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가짜 돈이 진짜 돈이 될 수는 없다. 가치가 있는 것들은 가짜들이 많다. 위선자들과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참된 은혜로 인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자.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자.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은 회심하였는가?”

~~~~~

자기 점검은 자아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탐구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예민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말씀은 규칙이고,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본다. 양심은 심사관으로서 그 유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의 움직임을 살핀다. 그리고 말씀의 도움으로 영혼을 해부하여 열어서 양심으로 비추어본다.- 스테판 차녹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확실하다(히 12:14). 또 동일하게 확실한 것은, 거룩함은 구원하는 믿음의 불변의 열매이며, 중생의 진정한 시험이고, 내재하는 은혜의 유일한 건전한 증거이자 그리스도와 의 살아있는 연합의 분명한 결과라는 것이다. - J. C. 라일

5. 자기 점검을 위한 요청

출처: *Studies in the Scriptures*

저자: 아더 핑크 (1886-1952): 목사. 순회 성경교사. 저술가. 영국 노팅엄 출신

역자: 엄지웅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피라” (히 12:15).

이 말씀은 점검에 대한 요청을 한다. **첫째로, 자기 점검을 위한 요청이다.** 이를 위한 직접적인 요구는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를 볼 수 없다”는 선행 구절로부터 엄숙하고 면밀히 언급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교리에 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진지하게 마음과 삶에 실제적인 거룩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

어가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피라”라는 권면은 적절하고 시급하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며, 종교적으로 경솔한 사람만이 이 긴급한 소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 큰 위험으로부터 긴급하게 요청되는 신중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기만 때문이다. 죄는 이해력을 어둡게 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다.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후4:4).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교만은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며,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면 그 의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만하기에 우리는 참된 자기 점검이 요구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에만 집중하고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성구에 대한 동의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실하게 만들기를 거절한다(벧후1:10).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우리가 있느니라(잠30:12)”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경고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3:17)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마지막 사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눅13:26)라고 말하겠지만, 그 때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3)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게 만드는가? 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이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들(히3:1)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해야 한다.

자기 점검에 대한 부지런함과 정직함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유익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된다.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보다도 그들의 육체에, 영적인 부요함보다는 육적인 즐거움에, 하늘의 위로 보다는 이 땅위에서의 위안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수는 -그리고 정말 소수이지만!- 진지하고, 필사적으로 그들의 기초를 정확히 점검한다. 그리고 그들이 서있는 기반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시험한다. 신앙은 번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내게 될 영원한 곳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관심사이다. 그 문제에 관한 뿌리가 확고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른 관심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 나의 독자들이여, 오늘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힘쓰라” (눅13:24)는 하나님의 아들의 긴급한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천박하고 쉬운 신앙에 만족할 수 있는가? 현재도 여러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설교에 안주할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인한 어떠한 기적도 없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서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반면에 주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7:14)?” 고 선언하지 않으셨는가? 당신은 감정을 자극하는 일화에 감동을 받고 내린 어떤 종교적인 결단에 감히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종교적인 견해와 외적인 삶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간청하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라” 는 이 중요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 - 이 구는 종종 논란이 되어 왔지만 참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없고 헬라어는 난외의 주(註)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사 원어는 신약에서 “실패하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만족시키지 못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 즉, “부족하다” 또는 “궁핍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로마서3장 23절에서는 “이르지 못하더니” 로, 누가복음15장 14에서는 “궁핍하다” 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는 “뒤쳐지다” 로,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부족하다” 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는 “궁핍을 견디다” 로,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는 “궁핍한” 으로 번역이 된다. 따라서 이 권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불확실한 여지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족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라” 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은혜는 때로는 객관적으로, 때로는 주관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를 언급하기도 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자비로운 작용을,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 구절에서는 다양한 여러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로서 다소 추상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권면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복음에 의해서 제시되고 선언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여기에 양자됨, 칭의, 성화, 그리고 위로 가운데 모든 영적인 자비와 특권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며, 그로 인한 결과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린다. 이러한 것들을 얻고 참여하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목표로 삼고 계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이도저도 모두 허사가 된다. 사람이 복음을 고백하더라도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경계되어야 할 약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복음의 조건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 조건들은 거둬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킨다. 그 조건들은 그들의 육적인 욕망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조건들은 그들의 교만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언급된 두 가지 요점 중 첫 번째 것에 대다수가 ‘실패한다’. 복음은 죄인에게 회개를 요구하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할 수 없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하고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그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들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거룩한 구속자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어떤 자들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눅19:14).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는 마음에 전달되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뭔가 종교적인 대체물에 만족한다.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경건의 모양에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딤후3:5)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기적으로 착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외적인 형식과 의식들을 그것이 나타내려는 본질과 관련된 체험적인 지식 대신 붙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삶의 변화와 영혼의 중생으로 인한 변화를 혼동하고 있는가? 아, 얼마나 많이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사44:20)는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가?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골 1:15) 나의 독자여 당신은 아는가?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인생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보이지만, 그러나 비밀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내적인 거룩함이 없기에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의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며 거룩하지 못한 욕정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비록 양처럼 무덤에 누여도, 그들은 거짓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영생을 놓친다. 이것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상태이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미 그 상태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139:23-24). 당신은 은밀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가? 성경을 읽는 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가 있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 점검에 마음을 쏟고 자신 안에 거룩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결정체이기는 하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아닌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자주 던져야 한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진지하고 열정적이지만, 결국 부주의해지고 게을러진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외적인 증거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침내 자신들의 부패한 취향에 부합되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굴복해 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그 은혜를 얻은 것처럼 보이나 결국 실패한다.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잠시 동안 돈을 벌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과녁을 향해서 곧장 날아가지만, 힘이 부족해서 그 과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

다. 잘 달렸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지 않도록 방해하였을까?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한 충만함이 무한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놀라운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빛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빛 가운데 걸지 않는다. 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경계하고 기도하는데 실패한다(막14:38). 그들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실패한다(고후7:1).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데 있어서 실패한다(벧후 3:18). 그들은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는데 실패한다(요일5:21). 그리고 그러한 실패 때문에, 그들의 평화는 깨지며, 그들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증언은 훼손되며, 잦은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

가장 뛰어난 성도의 거룩조차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참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필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거룩은 단순히 호언장담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은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보여줄 것이다. - J. C. 라일

## 6. 당신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출처: Born Again; or From Grace to Glory*

저자: 옥타비우스 원슬로우 (1808-1878): 비국교도 목사.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성장했다. 영국 배스 주 애비 묘지에 묻힘.

역자: 조상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3:1).

미술 작품에 대한 안목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든지 실물과 똑같이 그려진 정물화에 매료되어 한참을 감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실제와 같이 그렸기 때문이다. 너무 실체처럼 그려진 환상적이고 강렬한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새끼 사슴이 캔버스에서 튀어나올 것 같고, 포도의 자줏빛이 흘러내리는 것 같으며,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들이쉬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림일 뿐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정물화와 놀라운 정도로 비슷한 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술가의 손에 의해 영적인 정물화 또는 거짓된 회심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해, 영적인 정물화에 대

한 묘사, 즉 말로만 고백하는 외적인 거듭남에 대한 묘사는 완벽하다. 실상만 빼고 다 변한 회심이 여기에 있다. 영적인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여기에 영적인 죽음이 있고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한쪽은 환상과 허구와 가짜이고, 반대쪽은 엄중하고 암울하고 냉혹한 실체가 있다. 이는 삶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글에서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상태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초상화이다. 자신이 독실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만일 착각이라면 얼마나 더 슬프고 더 끔찍할까? 비록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중생했다고 믿는 것, 그러면서 외적으로 회심한 척하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상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중생의 본질과 증거들만 상세히 설명한 한 논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 소극적인 부분을 먼저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는 무한히 중요하기에 독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엄중히 고민해야 한다. 분명히, 중생이 없다면, 이곳에서는 은혜의 상태에 있지 못하며,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엄숙함과 압박 가운데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나는 정말 중생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거듭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당신을 돕고자 한다.

**먼저, 영적인 깨달음, 또는 신령한 진리를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생이 아니다.** 빛은 생명이 아니다. 붉은 장미빛을 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시체실을 힘 있게 환하게 비추며 시체 주위에서 뛰놀더라도 생명 없는 시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빛이 시체를 환하게 비춰 시체를 덮은 수의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체일 뿐이다. 태양은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다. 개인의 신앙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 지적으로 많이 알며, 건전한 판단력과 지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을 믿고, 지적으로 이해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색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이론적인 지식으로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대신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로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리는 단순히 자신이 이해한 사실들에 대한 동의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로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비껴가거나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리는 이성이라는 판단에 호소하고 경의와 믿음을 표하고, 그 영혼의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그런 능력들을 의기양양하게 취하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가장 깊은 사랑과 확신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요청하고 확보한다. 나의 독자여! 당신의 신학이 성경적이고, 정통 신앙고백을 하며, 마음은 기독교의 증거들로 잘 다듬어지고 확고히 서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산꼭대기를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만큼이나 영적인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종교적인 감정은 중생이 아니다.** 당신은 깊고 강렬한 종교적인 감정을 체험했을지도 모른

다. 엄중한 진리 앞에 양심이 자극을 받아 깨어날 수 있고, 감정이 흥분될 수 있으며 마음은 이치를 깨달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은 어둠의 통치로 그 영혼은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하늘의 영광에 대해 이해하고 소망을 품게 되며, 지옥의 고통에 대한 묘사를 듣고 두려움으로 굳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종교처럼 우리의 감정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종교처럼 우리의 감정적인 본성이 빠르고 깊게 반응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 얼마나 속히 그리고 쉽게 우리가 삶에서 종교적으로 잘살고 있다고 착각하는가!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슬프게도 생명 없는 정물화일 뿐이다. 진정한 회심은 타고난 또는 도덕적인 감정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는다. 결코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감정과 분리된 회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히 심오하고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다. 죄에 대한 진정한 영적 회심은 가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는다.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다. 영의 눈으로 영혼의 타락을 바라보는 것만큼 놀랍고 소름 끼치고, 압도적인 것은 없다. 누가 이 어둡고 신비로운 마음속 깊은 곳, 죄로 가득 찬 그 자리를 꿰뚫어 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께서 드러내 주지 않으신다면 떨지도, 울지도, 탄성을 지를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행16:30). 그러나 충심으로 우리는 강렬한 감성과 깊은 종교적 감정 그리고 큰 경각심마저도 죽은 영혼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은 진정한 회심과 별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만에 주의하라.

**단순한 종교적인 가책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영적인 죄의식 없이, 죄에 대한 단순한 지식과 통찰력, 죄의 존재와 죄의식에 대해 느끼는 생생한 불안감,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죄책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당사자에게 있을 수 있다. 죄에 대한 가책이 없이는 진정한 회심이 있을 수 없지만 심령의 영적인 중생이 동반되지 않은 본능적인 죄책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이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소위 “죄의식을 느끼지만” 그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의 결정적인 증거 없이 그대로 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책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만일 그것들이 거룩한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나타낸 효력적인 역사라면, 그 죄책들은 머지않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을 일으킬 것이며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단지 본능적인 흥분의 결과라면, 당신의 본성의 감정 부분이 자극을 받은 것일 뿐이다. 또한 단지 순간적인 생각, 후회, 눈물, 또는 지나가는 감정이라면, 금방 꺼질 거품처럼, 아침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나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참으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생명 없는 영적인 초상화일 뿐이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진정한 회심은 단순히 영적인 은사들을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면, 회심의 은혜와 무관한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던 증거를 볼 수 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러한 슬픈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한 성도에게 크고 뛰어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가 종교적인 열정과 결합될 때, 그것은 교회의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그 개인이 영적으로 철저히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지지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께서 경고하셨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7:22).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엄중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7:23). 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여, 뛰어난 업적을 자랑하는 이들이여, 화려한 금 촛대와 찬란하게 빛나는 불빛과 눈부신 별들 사이를 거니는 이들이여, 기독교인으로 드러내 준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값싸고 천박한 장신구들이 당신의 거듭남을 보장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영적인 회심은 그런 은사를 가진 당신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겸손하게 동행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속기 쉽고 또한 그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가! 생명도 불꽃도 없는 마음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진정한 사랑의 불꽃도 없이 우리는 화려한 수사(웅변)나 천사의 감미로운 음악을 내뿔 수 있다. 인간의 지성주의와 수사(웅변)가 마치 진정한 기독교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숭배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몸서리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생명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오히려 거짓과 사탄의 무기일 뿐이다. 사람들은 학습, 예리한 지성, 빛나는 업적들, 화려한 수사(웅변)와 매력적인 연설 등을 이용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적인 사탄과 거짓에 연합된 자들은 진리와 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할 이단” (벰후2:1)의 씨앗을 뿌려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도모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오히려 크신 은혜로부터 멀어져 소속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엄숙한 자기 성찰로 인도하시어, 가장 찬란한 재능들, 가장 세련된 기교들, 인간의 지성을 부여하고 치장했던 학교들이 이룬 가장 고상한 업적들보다 한 알의 참된 은혜를 귀히 여기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거룩하고 겸손하게 동행하고, 예수의 발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의로 날마다 살아가길 바란다. 자기 부인과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거룩함과 그 안의 천국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가장 값진 은사들과 가장 찬란한 공로들보다 더 큰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진정한 회심과 전혀 별개일 수 있다.** 악하고 회심하지 않은 세상에는 이 사실을 잘 드러내 주는 놀라운 예들이 많이 있다. 여전히 영적인 불신과 죽음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정, 사회,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서 청렴함과 강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품위 있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도덕성이 없는 진정한 종교가 있을 수 없지만, 진정한 종교 없이 고상한 요구로 가득 채워진 도덕성이 존재할 수는 있다. 우리 인생의 보잘 것 없는 도덕성이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접붙인 영혼과 그 영혼 안에 있는 은혜의 뿌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것이 열매이긴 하지만, 의의 열매도 믿음과 사랑의 결과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생명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눅18:13)고 외치던 겸손한 세리를 냉담하고 경멸하게 바라보던 교만하고 오만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불의일 뿐이다. 당신은 삶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를 고상하고 돋보이게 만들고 덕과 정직, 자애와 청렴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겠지만, 아직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신의 도덕성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풍기는 분위기는 분위기, 인격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거룩함과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단순한 도덕성일 뿐이다. 그리고 단순한 도덕성으로는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비록 도덕성이 영적인 생명의 시작과 열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름만 있지, 죽음과 결부된 삶, 즉 차갑고 생명 없는 죽음의 삶이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더 예리하고 엄중한 것은 이 엄숙한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증언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5:20)

**또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 유익함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타당한 지표나 증거로 여겨질 수 없다.** 그럼에도 이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고 치명적인 것은 없다. 지금과 같이 종교적인 정신과 열의가 가득한 기독교 시대, 즉 경건한 열정을 사랑하는 문화가 최상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크고 치명적인 유혹이 존재한다. 그 유혹은 영적인 정형물로 영적으로 소생한 생명을 대신하고, 기독교적인 활동으로 기독교를,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유혹이다. 또한 불규칙적인 자극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한 흥분 상태로 참되고 생명있는 신앙을 대치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다. 기독교적인 활력과 성공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실제 존재를 단정 짓기에는 기껏해야 부정적적이고 의심스러운 자료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두 갈림길 사이에 세워진 생명없는 표지판이 길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를 정확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우리는 경건한 순례자들을 천국으로 가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불안해서 끊임없이 묻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도 있다.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악한 자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방황하는 자를 돌이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포도원은 영적 재배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어서 아직 경작되지 않는 채 남겨져 있다. 씨가 없으면, 싹도, 꽃도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인 생명을 증거해주는 은혜와 거룩함의 열매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행위와 유익성을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생했고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전하지 못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럴지 못할 때, 실제로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회심한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강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회심에 무감각해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전례 없는 종교 활동과 활기 넘, 기독 사업과 흥분, 그리고 계속 생겨나는 각 단체들이 부와 풍성함을 제시하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봉사 시간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자원자들을 받는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에 속아 그것이 구원하는 종교이고 참된 회심이라고 믿을까 크게 우려한다.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성장과 비례하여 활동과 흥분이 커지는 만큼 자기 점검을 위해 멈추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기독교 활동 기구가 늘어남으로 기독교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요란 법석이 많아질 때 우리 자신의 영혼과의 조용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바람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자기 성찰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만큼 정확히 똑같은 비율로 증가되어야 한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사용될 수 없다고 짐작하지 말라.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도울 수 있다.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왔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전혀 거룩하지 않은 나라들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주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였듯이 주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깨뜨릴 수 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롬9:17).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금석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며 선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철저한 회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주님의 만찬에 앞서

출처 : “Self-Examination and the Lord’s Supper,” in *Jonathan Edwards Sermons*, ed. Mark Valeri (New Haven, CT: The Jonathan Edwards Center at Yale University, 1730-1731).

저자 :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 미국 회중주의 목사이자 신학자. 미국 코네티컷 주 이스트 윈저 출생

역자 : 박기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8-29).

신자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성찬에 적합한지 살피야 한다. 이는 분별치 않은 참여로 인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이다. 신자들을 부적합한 참여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며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극명하게 반대되는 것으로서 우리를 부적합한 참여자로 만든다.

따라서 신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야 하며, 그 점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는 알려진 죄악들 안에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야 한다.** 부정한 생활과 습관적인 정욕을 반복하며 살았던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규례에 지극히 부적합한 자들이다. 그의 죄가 범죄이든 또는 태만이든 만일 그 죄가 드러나 알려진다면, 그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어떠한 죄라도 그것은 신자를 주님의 만찬에 부적합하게 만든다.

그가 지은 죄가 작든 크든 간에 양심의 본성의 빛에 거스른다면, 그 죄를 버리기 전에 주님의 식탁에 오는 자는 부적합하고 무가치한 참여자가 된다. 그러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수천 배 낫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의 성찬 참여는 거룩한 규례를 경멸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짓이기도 하다. 구약에서도 의식법에 따라 부정한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들은 희생 제물을 먹지 못했다. 이처럼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거룩한 규례인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과 제단과 희생 제물과 절기들이 거룩하게 유지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이 규례가 불결해지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지신 것이 틀림없다. 구약에서 부정한 자들이 규례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엄격히 금지된 것처럼, 알려진 죄악에 의해 부정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상징인 거룩한 규례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신자는 일생 동안 모든 죄를 피하고,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기로 진지하게 결심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가 현재 알려진 죄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죄의 길을 걷지는 않지만 죄지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나면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 진지하게 결심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피하지 않았다면, 성찬 참여에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례인 주님의 만찬에 선불리 참여하기 전에 평생 모든 알려진 죄를 피하고 순종의 길을 걸겠다는 결심이 있는지에 대해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신자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형제에 대한 증오와 질투와 복수심이 있는지 각별히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만일 그가 형제들에게 위와 같은 심령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때때로 그런 심령으로 형제들에게 화를 내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가 성찬 참여에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먼저 그러한 심령을 버리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만찬을 헛되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각자에게 있는 그러한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성찬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만들며 그 규례를 그에게 헛되게 만드는데, 이는 집에 있는 누룩이 유월절을 헛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그것의 신맛 때문에 악독과 악의라 불리운다. 사도는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불렀으며, 우리에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없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누룩없이 지내라고 명령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고전 5:8). 이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에 있었던 일반적인 죄악 및 특별히 악한 행실과 악의가 그리스도인의 절기에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의 형제를 용서하였는지 각별히 자신을 살펴야 한다. 형제가 어떤 해를 끼쳤던지 간에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갖거나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결단

코 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신자가 다른 형제와 서로 다투다면, 그들은 주님의 만찬에 오기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이 싸운 상태에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면, 그들은 헛되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신자는 성찬의 유익과 목적과 주된 의도에 있어서 진지한 마음과 소원을 갖고 있는지 각별히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넷째, 신자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에 대해 자신을 살펴야 한다.** 즉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이 제정된 규례의 목적과 같은지, 그리고 그 목적은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성찬은 참여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영적인 유익 얻기를 갈망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에 대한 진지한 소원없이 단지 세상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해 규례에 나아온다면 그들은 헛되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일을 고린도 성도들이 했다고 성경에서 말한다. 고린도인들이 성례에 참여한 동기는 주님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살찌우고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

신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 알려진 죄악 속에서 사는 자들, 진심으로 그 죄악 된 삶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자들, 형제들을 향해 악한 생각과 증오를 품고 있는 자들, 성찬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성찬에 부적합하고 무가치한 자들로써 주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즉 그들의 먹고 마심은 그들을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하며 그 저주를 확증하는 것이다.

참된 성찬 참여자들은 영생을 먹고 마시는 자들로서 그들의 먹고 마심은 그들의 영혼에 유익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며, 영생의 약속을 그들에게 확증해준다. 그러나 헛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즉 그들의 먹고 마심은 결국 그들 자신을 저주에 놓이게 하며, 그 저주를 확증한다.

**근거:** 분별치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규례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함부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주님의 몸과 피와 교통하는 것은 성찬을 지극히 경멸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오물로 범벅이 된 연회복을 입고도 뻔뻔스럽게 참석했다면, 그것은 그를 초대 한 왕에 대한 지극한 모욕일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유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제정된 규례에 대한 심한 모욕이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즉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죽인 살인자로 만든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서있었던 자들은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모욕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죽인 일에 동참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을 경멸하게 여기는 것

은 주님의 몸을 난도질하고 그의 피를 흘뿌리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죄, 즉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된 성찬 참여자들이 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양분을 얻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다. 둘째는 포악한 짐승들이 잡은 먹이를 먹는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두번째 참여자들은 살인자들이 피를 갈구하듯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다. 그들은 욕의 집안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포식하길 간절히 원하며 그의 살을 먹는다.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욥 31:31). 그리고 이와 같이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과 같아서 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마치 자신의 악의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들은 저주로부터의 유일한 치료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멸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성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먹고 마시지만, 주를 모욕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로서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적용:** 이 교리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심판을 확정하지 않도록 주님의 만찬에 앞서 자신을 살피도록 경고한다. 만일 당신이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성찬에 오기 전에 자신을 살피도록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면 더 이상 이 의무를 등한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최악된 삶을 살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결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러한 자기 점검에 있어서 성찬에 부적합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에게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비록 하나의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지속된다면, 진실로 말하건데 성찬에 오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의 목적은 성찬에 앞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성찬 참여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된 어떤 최악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는바 그들이 최악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찬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만일 당신이 알려진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이생에서 진지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헛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구원의 길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인데, 이로 인해 우리는 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토마스 보스턴

8. 일일 신앙점검 지침 요약

출처 : A Short Directory for the Great, Necessary, and Advantageous Duty of Self-examination.

저자: 토머스 윌콕스(1621-1687), 영국의 개혁침례교 목사로서 영국 중부지방인 러트랜드 카운티의 작은 마을인 린튼에서 태어났다.

역자 : 안선형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의무로서 매일 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다.

경건 생활과 관련된 질문

- 1)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교통을 하였는가?
- 2) 나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 3) 나는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 4) 나는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놓친 것은 없었는가?
 - (1)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 (2) 하나님에 대하여
 - (3) 그리스도에 대하여
 - (4) 죄에 대하여
 - (5)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 (6) 하나님이 역사(役事)하시는 섭리에 대하여
 - (7)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책무에 대하여
 - (8) 죽음에 대하여
 - (9)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 (10) 지옥에 대하여
 - (11) 천국에 대하여
- 5) 나는 홀로 은밀하게 기도할 때나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경망스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또한 기도의 의무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 6) 나는 경솔하고 경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복에만 집착하여 간구하다 보니 기도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 7) 나는 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대충 서둘러 끝내지는 않았는가? 또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도 누워서 빈둥대지는 않았는가?
- 8) 나는 기도를 마친 후에 망대에 올라가 경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열매와 복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가?

죄와 시험에 관련된 질문

- 1) 나는 내게 닥쳐오는 시험을 경계하며 쫓아버렸는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유혹 속으로 빠져들었는가?

- 2) 나는 오늘 어떠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는가?
- 3) 나는 오늘 믿음의 지식과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한 것은 없는가? 또는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 4) 나는 태만하여 죄를 범했거나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 죄악 속에 살지는 않았는가?
- 5) 나는 불의로부터 자신을 소중하게 지켰는가, 아니면 다시 불법을 저질렀는가?
- 6)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떠한 범죄라도 저질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부당한 죄를 저질렀는가?
- 7) 나는 죄를 느슨하게 여긴 탓에 복음과 은혜,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한 즐겁게 누리지도 못한 것은 아닌가?
- 8) 나는 죄악에 빠졌을 때 지은 죄를 변명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회개하였는가?

마음의 생각과 관련된 질문

- 1) 나는 내 마음을 영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체질 안에서 지켜내었는가? 그리하여 항상 거룩한 의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어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있는가?
- 2)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계신 듯이 대하였는가, 특히 잠에서 깨어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 3) 나는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사망과 심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 4) 나는 어리석은 생각, 게으른 생각, 헛된 생각을 분별하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였는가?
- 5) 나는 하루 동안 진심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반복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 6) 나는 홀로 고독할 때에도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다스리기 위해 애쓰며 노력했는가?

언어 사용과 침묵에 관련된 질문

- 1) 나는 어리석은 말, 불필요한 말, 분노를 표현하는 말, 사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삼갔는가?
- 2) 나는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웃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타인의 부정이나 캐고 다니라고 나를 부르셨을까?
- 3)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웠는가? 또한 나 자신에게도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그러하였는가?
- 4) 나는 혹시 침묵을 지켰어야 할 때 경솔하게 입을 열지는 않았는가?
- 5)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라고 하실 때 침묵하고 있었는가?
- 6) 나는 거짓말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았으며 항상 진실한 말만 했는가?

대인 관계와 언행과 관련된 질문

- 1)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또한 동년배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처신하였는가?

- 2) 나는 나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의무를 온당하고 진실하게 이행하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 3) 나는 부모로서 먼저 자녀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건강 또한 보살피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 4)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 5)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영혼과 건강을 돌보며 사랑하고 있는가?
- 6)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순종하면서 남편과 가족의 복을 위해 진심으로 보살피고 있는가?
- 7) 나는 교회나 정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하고 있는가?
- 8) 나는 시민으로서 또한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하여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시민으로 해야 할 도리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와 은혜와 관련된 질문

- 1) 나는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형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가?
- 2)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려고 노력했는가, 오늘 내 원수들에게 직접 그리하였는가?
- 3)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욕망과 집착을 억제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바른 삶을 살았는가?
- 4)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하였는가?
- 5) 나는 온종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친구들과 어울릴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와 봉사를 할 때나 세상일을 할 때도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였는가?
- 6)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화내는 것을 피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함으로 언행을 삼갔는가?
- 7) 나는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 8) 나는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잘 견뎌내고 있는가?
- 9) 나는 범사에 정직과 단정함으로 말은 분명하게 하고, 온갖 사기와 거짓은 멀리하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가?
- 10) 나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며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속적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시간과 기회와 관련된 질문

- 1) 나는 오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해 시간을 아끼었는가?
- 2) 나는 필요 이상으로 늦잠을 자서 나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경건의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아주 중요하거나 유익한 일을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 3) 나는 빈둥거리면서 무익하고 헛된 이야기를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였거나, 부질없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잠겨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 4) 나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시간을 목적도 없는 망상과 생각을 만족시키는 데 쓰지는 않았는가?
- 5) 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무미건조한 모든 교제와 식사 모임을 피해 시간을 아꼈는가?
- 6) 나는 세상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이야기로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 7)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시간을 선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애쓰면서 노력했는가?
- 8) 나는 항상 모든 기회를 내 영혼의 복을 위한 교훈이나 책망으로 받아들이거나, 내가 더욱 열심을 품도록 분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9.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출처: 1858년 10월 10일 주일 설교. 로알 서레이 가든스 뮤직 홀.

저자: 찰스 스펔전 (1834-1892): 영향력 있는 영국 침례교 설교자; 영국 에섹스의 켈베돈에서 태어났다.

역자: 한상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후 13:8).

오늘 아침 하나님의 영이 칼을 끝까지 들이밀어 하나님의 힘이 모든 마음에게 느껴지도록 할 것이다. 고삐를 찾고 당기시면서 말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 13:5).

먼저 자신을 시험하라. 이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을 하는 사장이 직원에게 재정 인계를 받을 때, 동전 몇 개 정도는 검토하지 않고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전이 아니라 금에 관한 문제라면 그는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적은 소득에서 금화를 잃어도 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5 파운드 지폐 이야기라면, 그는 조심스레 그 지폐를 들고 창문에 비쳐보면서 워터마크가 있는지를 보며 제대로 된 지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원은 사장님의 큰 돈을 잃어버린다면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여, 만일 당신이 영혼의 문제에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면 당신은 참으로 속는 것이다. 당신의 토지 계약서와 당신의 생명 보험 증서를, 그리고 당신의 사업과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피라. 하지만 금과 은 등,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당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비해 용광로 속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 자신의 영혼, 당신의 영원한 영혼의 문제이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의 상태에서 좀처럼 자신의 동료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늘날 극심

한 공포가 발생하여 아무도 스스로를 믿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믿는 것보다 동료를 믿는 것을 훨씬 안전하게 여길 것이다. 형제들이여, 당신의 영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눅 12:23). 하지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처럼, 영혼은 몸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몸은 결국 무엇인가? 천 조각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몸이 아픈가? 낡아버린 옷처럼 내버려두라. 나는 몸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지만 주여, 나는 내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얼마나 두려운가? 당신과 내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끔찍한 위험이다. 그것은 영원한 위험이다. 그것은 천국인지 지옥인지의 위험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인지 영원한 저주인지에 대한 위험이다. 사도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한 것은 옳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실수한다면 다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을 시험하라. 파산한 사람은 재산을 한번 잃었다 해도, 다시 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 기회를 다시는 얻을 수 없다. 위대한 장군도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승리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갑옷을 동여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당신의 영혼의 영원한 상태는 오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내고, 당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신앙은 당신의 성직자에, 당신의 목회자에, 당신의 친구에 밀려 뒷전에 두라. 그러면 당신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그 오류를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희망조차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으므로 당신 자신을 점검하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권위를 두고 단언할 수 있다. 당신도 스스로를 관찰함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은 종종 위와 같은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경악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 의아해 한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면 당신도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들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당신 역시 착각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영혼들이 걸려 넘어진 걸림돌을 본다. 근거 없는 추정과 자신감이라는 사이렌의 유혹의 노래가 이 시간에 당신을 그 걸림돌로 끌어낸다. 멈춰 서게, 향해사여 멈춰 서게, 당신에게 간청한다네. 저 멀리 백골을 보고 물러나 있게. 많은 영혼들이 파멸하였다. 그들은 현재 이 시간에 영원한 파멸로 인해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파멸이 남긴 흔적이라곤 이것밖에 없다. 즉, 그들은 자신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절대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호소한다. 나에게 당신이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물론 그 사실을 듣고 나는 기쁘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청한다. 자신을 시험하라. 어쩌면 30~40년을 종교학 교수로 역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은 다가올 것이다. 결국 그의 종교는 부러져, 숲속 썩은 가지였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내게 당신이 집사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집사일지라도 지독하게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 내게 당신은 사역자라고 속삭이지 마라. 나의 형제된 사역자들이여!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예복 대신 지옥의 불꽃으로 된 허리띠를 찢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고 설교단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도운 이들과 함께 영원한 영혼의 통곡에 동참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아무도 팔짱을 끼고 “나는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서든 또는 어디에서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볼 것이기에 당신 자신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저울과 균형이 있다. 당신이 주장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울질 당할 것이다. 모든 이는 그 저울에 놓인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저울 안에 있을 때, 어떤 순간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함께 할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의 의를 옷 입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으면서 저울에서 이런 평결이 나올까 두려워 떨 것이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 데겔은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단 5:25)). 하나님은 금과 은을 외양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릇을 불로 정결케 하신다. 우리는 각각 정밀 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자여!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판단하시겠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끔찍한 점검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워 떨겠는가? 당신은 지금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동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날에 우리는 얼마나 판단을 받겠는가?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그 마지막 완전한 심판대로 소환될 것이다. 오, 주여,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도우소서.

아직 내게 당신에게 알려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나의 친구여, 자신을 점검하라. 그 이유는 만약 당신이 지금도 의심 속에 있다면, 당신의 의심들과 두려움들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점검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 의심한다고 믿는다.

자가 진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의심 반, 두려움 반에 대한 가장 안전한 치료이다. 저 너머의 선장을 보라. 그는 배 안에 있고, 선원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항해를 해야 한다. 조심하게나. 사실을 말한다면,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네. 나는 경도와 위도를 정확하게 모른다네, 어쩌면 암초들이 바로 앞에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곧 파선될지도 모른다네.” 그는 선실로 내려가 해도를 찾아 천국 점검표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 말한다. “모든 돛을 올려라! 즐겁게 계속해서 나아가자! 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다. 물은 깊고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다. 자네들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네. 점검은 나를 만족하게 했다네!” 당신 자신을 살펴본 후에 당신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12)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러면 왜 당신은 즐겁고 기쁘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점검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혹여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너무 늦게 알아내는 것보다 지금 알아내는 것이 낫다. 내가 살아있는 한 때때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다음과 같다: “주여,

나에게 나의 최악의 경우를 알려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왔다면 주여, 그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형편에 대해 너무 안전하게 생각해서 그 추정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보다 당신 앞에서 내 형편을 더욱 가혹하게 따져보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고, 추정에 의해 망쳐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마음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이 기도가 각 영혼의 기도가 되고 하늘에 들려지기를 바란다.

자, 지금 당신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아는가? 매우 간결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돕도록 하겠다.

먼저, 당신 자신을 점검하려면, 당신의 공적인 삶부터 시작하라. 당신은 부정직한가? 도둑질을 하는가? 욕을 하는가? 술취함과 부정함,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주의 성일을 어기는 것을 하는가? 스스로 어서 해결하라. 더 이상 점검해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엡 5:5). 당신은 버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고 있다. 당신의 상태는 끔찍하다. 지금 당신은 저주 받은 상태에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영원히 저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당신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부러지고 뺨뚫어진 세대의 중심에서 의와 경건함, 그리고 깨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기억하라. 공연자여! 마침내 당신의 업적에 의해 당신은 판단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는 그것들이 악한 업적이라면, 당신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외적 행위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얼굴을 떨구고 다시 울도록 하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눅 18:13);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욱 한결 같고, 더욱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도록 은혜를 더욱 구하자.

또 다른 일련의 시험은 사적인 시험들이다, 당신의 사적인 삶은 어떠한가?

당신은 기도와 말씀을 살피는 것 없이 살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 없이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 할 수 있다. 당신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행 8:23).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바르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울며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10배는 더 울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 119:97). 나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의 집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손을 때때로 그분을 향해 듭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 일로 분주할 때, 내 마음은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신호이다. 만약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 당신은 당신의 멸망의 상태로 인해 울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멸망의 상태로 인해 비통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말하자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실패를 겪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단순하게, 완전하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시험을 충분히 잘 통과한 것이다.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당신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 말이다. 또한 그 믿음은 당신을 어두운 시간 속에서 그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에 대한 은밀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며, 당신의 갈망은 주의 길을 찾는데 있고, 당신은 성령의 영향력을 느끼고, 날마다 성령님과 유대를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가?

끝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버림받은 자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시다면, 당신의 마음이 때때로 너무 어두워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고 거의 말할 수 없더라도 당신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참조, 뱀전 1:8).

10. 자기점검의 적용

출처: *Practical Religion* (London: Charles Murray, 1900), 3-9.

저자: J. C. 라일 (1816-1900): 영국 교회 주교, 영국 체셔 카운티 매클즈필드 출생

역자: 김혜원

나는 나의 질문을 여기서 마친다. 질문들을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질문과 자기점검을 불러일으키도록 이 책의 앞부분에서 충분하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혼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단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몇 마디로 하고 끝맺으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기독교에 대해 잠에 빠져 있거나 몰지각한 분이 있는가? 오, 깨어나서 더 이상 잠들지 마라! 저 교회 뜰과 무덤들을 보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곳으로 떨어지고, 당신 또한 언젠가는 그곳에 눕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세상을 기대하며,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당신이 죽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적합한 사람인지 감히 물으라. 아! 당신은 나이가 가라 폭포를 향하여 흐르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보트 안의 잠든 이와도 같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욥

1:6; 엡 5:14).

독자 중에 자책을 느끼며 자신의 영혼에는 희망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가? 당신의 두려움을 버리고 죄인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마 11:28, 요 7:37, 6:37) 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이 말씀이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의심하지 마라. 불신, 죄책감, 부적절함, 의심 그리고 연약함 등,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실 것이다(눅 15:2). 두 의견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서 편안한 계절을 기다리지 마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막 10:49).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독자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다지 기쁨과 평화와 안락이 없는 자가 있는가? 오늘 이 충고를 받으라. 당신의 마음을 살펴 그 결함이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지 보라. 아마도 당신은 편안함 속에 앉아 적은 믿음, 적은 회개, 적은 은혜, 적은 성화에 만족하며 무의식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당신이 므두셀라만큼 장수를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바라보고 싶다면 지체 말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라. 과감하게 나와서 단호히 행동하라. 신앙 안에서 철저하고 철저한 가운데 매우 철저하여지고, 얼굴을 완전히 태양으로 향하도록 하라. 당신을 쉽게 얹매는 무거운 짐과 죄를 떨쳐버리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 늘 붙어 있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고, 생명의 샘에서 차고 넘치도록 마실 수 있도록 분투하라. 사도 요한은 말한다.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일 1:4).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요일 1:7).

독자 중에 자신의 연약함, 아픔, 죄의식으로 인하여 의심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자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기를” (마 12:20).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함임을 생각하며 평안하라. 당신의 믿음이 연약한들 어떨겠는가?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가장 작은 생명의 알갱이라도 죽음보다 낫다. 아마 당신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당신은 아직 육신 안에 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많은 것을 바라라. 내 자신을 적게 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독자 중에 가끔 천국을 향하는 길에서 육체, 가정, 환경, 이웃,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들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긍휼이 많으신 구주를 바라보고 그 분 앞에 당신의 마음을 부으라.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느끼실 수 있다. 당신은 외로운가? 그분도 홀로 계셨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가? 그분 또한 마찬가지셨다.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그분도 버림을 받으셨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도 핍박을 받으셨다. 당신의 몸은 곤고하고 영적으로 괴로운가? 그분도 그러하셨다. 그렇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다. 느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도우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

가가는 것을 배우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짧은 그 시간이 다 지나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살전 4:17).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 23:18, 히 10:36-37).

~~~~~

사람이 마음을 살피는 일을 좋아하면, "선생님, 깊게 베세요. 날 봐주지 마세요. 내가 위선자라면 알려 주세요."라고 말한다. - 스펔전